

담당부서: 국제통상과

담당자: 최훈기 주무관

연락처: 055-211-3183

경남대표단, 태국 식품회사 CPF와 수출입 업무협약 체결 등 전방위적 농수산물식품 수출 판로개척 나서

- 태국 재계 1위 CP 그룹 자회사인 CPF와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업무협약 체결
- 현지바이어 20개 사 대상으로 경남 수출상담회도 진행
- 딸기, 김, 굴 경남농수산물식품 인기...총 350만 달러 규모 수출 MOU 성사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 중인 경남대표단은 30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태국 최대 식품회사 CPF(Charoen Pokphand Foods)와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기업 10개사와 태국 현지바이어 2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세계 각국의 건강식에 관한 관심 증대,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 해외 온라인 구매 보편화에 따른 글로벌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K-푸드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태국은 외식문화가 발달하고 한식 식자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2023년 기준 수출액 3,411만 달러로 ‘경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8위를 기록하는 등 경남의 주요 수출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태국 재계 1위 CP 그룹의 자회사인 CPF의 본사에서 프라싯 분두엥프라삿(Prasit Boondoungprasert) CPF 대표를 만나 수출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CPF는 5천여 개의 푸드코트 및 레스토랑 등 산하 거대 유통망을 활용하여 경남도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도는 경남의 우수한 농수산물식품의 품

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날 경남대표단은 도내기업 10개사와 태국 현지바이어 20개사를 대상으로 경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 현장에서 도내기업 5개사와 해외바이어 5개사가 총 3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남도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해 도의 우수 농수산물식품을 알리고 수출 판로개척의 성과를 거뒀다.

박완수 도지사는 “태국은 음식문화가 발달해 1인당 식품 소비량이 많고 한식에 관심이 많아 매력적이고 유망한 시장이다”라며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경남의 농수산물식품과 태국의 음식문화가 같이 마주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최훈기 주무관(055-211-31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